

First mover, K-대학을 향한 담대한 혁신 「글로벌대학 30」 혁신 이행 협약

충북대학교, 국립한국교통대학교, 충청북도,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충북대학교 및 국립한국교통대학교가 글로벌대학 본지정 시 제출한 실행계획(이하 ‘실행계획’이라 한다) 이행을 통해 대학혁신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,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혁신생태계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- 제1조 (협약 기간) 본 협약은 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가 글로벌대학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존속한다. (2023. 12. 1. ~ 2028. 2. 29.)
- 제2조 (글로벌대학) 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글로벌대학30 추진 방안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실행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, 다른 글로벌대학들과 협력하여 대학혁신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한다. 실행계획의 이행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.
 - ① 충북대학교-국립한국교통대학교 간 통합신청서를 2024년 상반기 내에 제출하고 통합 절차를 추진
 - ② 지역 주력 산업 분야 혁신 인재 1,000명 양성
 - ③ 수요 기반 인재 육성으로 졸업생의 지역 정주율 40% 달성
 - ④ 학생 중심의 학사 구조 및 제도 혁신 달성
- 제3조 (지방자치단체) 충청북도는 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의 글로벌대학30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산학연 지원체계 구축, 지역인재 취·창업 및 정주여건 개선, 맞춤형 특성화 인재 육성 등 행·재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.
- 제4조 (교육부) 교육부는 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를 「지방대육성법」 제17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하고, 동 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한다. 그 중 주요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① 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가 실행계획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규제 개선 사항에 대해 제도개선, 특례 우선 적용, 대안 제시 등을 적극 추진한다.

② 실행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든 통합 추진 대학들의 총 예산 소요액 평균이 일천 오백억원 수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의 실행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며, 대학의 신청을 받아 학교별 역할, 학교 규모, 실행계획의 구체적 방안, 이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·연차별 지원액을 결정한다.

- 제5조 (한국연구재단) 한국연구재단은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글로벌대학 지원 예산과 관련된 사업들 간 유기적 운영 및 행정적 지원을 통해 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의 실행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.
- 제6조 (협약의 해지 등) 글로벌대학위원회가 각종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충북대학교 및 국립한국교통대학교의 실행계획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교육부장관은 별도의 성과관리 절차를 거쳐 「지방대육성법」 제17조 제3항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을 취소하고 동 협약을 해지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충청북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제7조 (권리·의무의 승계) 이 협약 당사자의 명칭, 대표자 등 단순 사항 변동 발생시에도 협약에 따른 권리·의무는 포괄 승계된다.
- 제8조 (기타사항) 이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각 기관 대표가 서명한 협약서를 5부 작성하여 “각 기관”이 각1부씩 보관한다.

2024. 2. 21.

충북대학교총장 국립한국교통대학교총장 충청북도지사

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